

Hülya Canbakal, *Society and Politics in an Ottoman Town: 'Ayntab in the 17th Century*. Leiden: Brill, 2007.
213 pages+xii. ISBN 978-90-04-15456-8.

이 은 정
(서울대 동양사학과)

오스만제국사 연구에서의 주된 경향은 강력한 국가와 그에 동반되는 제도적 시스템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국가의 존재여부는 오스만제국사 전체의 부침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국가 기구와 제도들의 와해는 바로 오스만 제국 사회의 모든 부문의 쇠퇴인 것처럼 간주되었었다. 80년대 까지도 상당히 유지되었던 이러한 기존의 관점이 오스만제국을 이스탄불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17세기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지방 세력들은 주로 부정적으로 보였었고, 중앙집권의 장애물, 중앙에 대한 반란의 주역들로 파악되었다.¹⁾ 지방사 연구가 향토사의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15-16세기 여러 지방행정

1) Karen Barkey, *Bandits and Bureaucrats: The Ottoman Route to State Centraliz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Introduction. 이러한 관점이 유럽에서 17-18세기에 전쟁에 필요한 동원과 물자징발 등을 위해 점점 더 강력하게 사회집단들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고 그에 맞서면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되어간 유럽 국가들의 케이스에 기준을 두고 있음이 사실이다.

단위에 대한 튀르크어로 된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흔하게 진행되었던 한편, 중앙집권화가 무너진 17-18세기의 지방명사들이 지역 사회 및 중앙의 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이 기울여진 것은 상당히 새로운 일이다.²⁾

힐랴 잔바칼(Hülya Cambakal)의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동향에 십분 연결되면서 단순히 지방사의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오스만제국사 연구 전체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들을 던져주는 연구서이며 17세기 아인탑(오늘날 터키의 가지안텡[Gaziantep],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의 사회에 대한 창의적이고도 근면한 연구의 산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매우 해박하며, 오스만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문들과 역사서술상의 전통들을 다루고 있어서 여느 오스만 지방사와는 다르다. 이 책은 단지 오스만 중앙-지방 관계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유라시아적 차원에서 여러 지역의 초기 근대성(early modernities)의 상호비교, 통시적인 이슬람사 내지 중동사, 그리고 사회과학적 분석의 맥락에도 동시에 속해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17세기 유럽 도시의 상황, 9세기의 이슬람 철학자 알 킨디(d.801-873)의 일화, 부르디외의 사회 이론 등을 가볍게 넘나들면서 17세기 아인탑의 사회를 분석해낸다. 잔바칼의 글은 읽기쉬운 명확한 서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저자의 심사숙고로 가득한 분석이 너무도 ‘고밀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스만사의 고전 이후 시대(post classical period)의 서술에 있어서 쇠퇴이론, 지방 명사의 성격, 아스케리(세금을 내지 않는 지배층)와 레아야(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는 피지배민) 사이의 신분이동 같은 일련의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17세기 아인탑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른바 지방명사들(혹은 아얀 [a‘yan]: 영어로는 notables로 주로 번역되며, 잔바칼은 provincial elite라고 규

2) 오스만 제국 후반기의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로는 Dina Rizk Khoury, “The Ottoman Center versus Provincial Power-Holders: an Analysis of the Historiography”, *The Cambridge History of Turkey*,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35-156.

정하였다.)의 전성시대였던 18세기 시대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잔바칼은 지방명사들의 성장이 제국의 쇠퇴를 필연적으로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연구들에 동의한다(p.6). 한편 저자는 오스만시대에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의 도시를 분리해 보는 20세기의 국민국가들의 역사서술을 과거로 투사하는 것을 경계한다. 제 1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17세기에 아인탑은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두 지역 사이에 걸쳐 있던 중간 크기의 평범한 도시였고, 중앙정부가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이스탄불에서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오스만 체제 안으로 지방도시가 통합되는 것의 문제,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의 지역적 연결과 유사성, 지방 엘리트의 영향력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시험해 보는 데 매우 적합한 장이 되는 것이다.

잔바칼이 이 책의 저술에 사용한 여러 종류의 원 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상속문서, 소송기록, 공증된 계약 등을 담고 있는 아인탑의 법정문서(şer'iyye sicilleri)들이다. 오스만 법정문서는 모든 계층의 무슬림은 물론 비무슬림까지도 법정을 다양하게 이용하였으므로 다른 문헌사료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서민들의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로 부상하였다. 법정문서는 지난 20여 년간 갈수록 더 창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법정문서의 이용은 오스만 사회의 표준적인 연구방법이 되어 있다.

잔바칼은 그 이외에 중앙 정부의 각종 문서들, 파트와(fatwa: 법률상담가인 무프티mufti가 주는 법률자문의견) 선집들, 해당지역의 시문학과 민간 전설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사료를 광범위하게 섭렵하였다. 저자는 20여 책(defter)이나 되는 법정문서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원고, 증인, 고아 후견인, 와크프(waqf: 종교 자선기금) 행정가들, 부유한 사람들의 이름과 칭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치밀하게 수집해서 어떠한 규칙성이나 상호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인탑 시의 사회상은 놀라운 것이다. 소수의 지방명사들은 아인탑 시를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명사들의 이

름은 법정문서에서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 고아의 후견인으로, 법정에서의 중재자로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그들은 주요한 국가기관이자 종교기관인 법정에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에게서는 그다지도 많은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가능한 한 통계의 한계와 왜곡 가능성을 숙고하는 신중한 자세가 돋보이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분석은 신뢰할 만하며 풍부하고 입체적인 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의 오스만 제도와 관행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서술, 특히 지방행정, 임명, 징세, 치프틀릭(çiftlik: 상업적 대농장), 사법처리 과정, 워크프 행정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기술들은 저자가 오스만사 분야 내의 오랜 전통들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깊고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2장은 지방엘리트가 아스케리 신분을 통해 국가의 영향권으로 통합되어 갔음을 추적하고 있다. 잔바칼은 아스케리 층의 팽창이 지방의 “오스만화” 과정과 일치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³⁾ 이는 “중앙과 지방이 150년간의 고전시대 중앙집권적 정권 아래서 보다는 더 공고하게 통합되고 있었을 수도 있음” (p. 61)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저자는 여기서 근대 초 유럽에서의 칭호의 인플레이션(“inflations of honors”)이 국가와 민간의 필요를 양자 모두 충족시켰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칭호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인 독자에게 조선후기 양반층의 팽창 현상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제 3장은 유산상속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결론은 아인탑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부유한 10%는 평균적으로 가장 가난한 10%의 100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였다. 여기에서 엘리트는 군, 종교인, 상인 등 다양한 기원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투자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균질적인 것으로

3) 고전 이후시대의 본격적인 “오스만화”라는 관점은 디나 리즈크 후리가 이미 이라크의 모술 지방에 대한 연구서에서 설파한 바 있고, Karl Barbir나 Jane Hathaway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Dina Rizk Khoury, *State and Provincial Society in the Ottoman Empire: Mosul, 1540-18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드러났다.

제 4장과 5장은 아인탑의 엘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일상 속의 정치를 다룬다. 제 4장은 엘리트의 사법적 과정에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칭호가 있는 엘리트는 법정에서의 소송에서 칭호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였고 (칭호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약 30-40% 대의 승소율을 보였다) 증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 매우 활발하게 법정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제 5장은 논의를 개인과 도시 차원 모두에서의 대표 선임과 의사 결정 이라는 좀 더 추상적인 주제로 끌고 갔다.

마지막의 결론은 아얀 (명사들)이 개인들, 기관들, 혹은 아인탑 시 전체를 대표하였고 중요한 집단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잔바칼에 의하면 아인탑의 사람들(ahali)이 대표를 통하여 공적인 맹세(nezir: 예컨대 특정 반란집단을 반대한다든가 탈영병을 도와주지 않는겠다는 내용)를 하거나 집단적인 행위(예컨대 돈을 모아 지방총독 관저를 사서 마련하는 등)를 했다는 기록들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명사들이 아인탑의 ‘사람들’과도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한다. (아랍어에서 유래한 사료 용어인 ahali는 잔바칼에 의하면 단순히 한 도시 안에 같이 거주한다는 뜻의 주민[sükkan]과는 달리 서로 사회적 관계로 엮어진 사람들이란 함의를 가진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로 엮인 한 도시의 ‘사람들’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구조 안으로 잔바칼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을 엮어내었다. 아스케리의 팽창과 관련하여 우선 특기할 만한 현상은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이드(seyyid, 복수는 sādāt: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들로서 국가가 이들에게 다양한 특권을 수여하였다.)가 수적으로 크게 (한명도 없던 것에서 352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이드의 팽창은 민간인의 명예로운 칭호인 켈레비(주로 상인, 수공업자)와 에펜디(주로 종교인, 지식인) 등이 감소세를 탄 것과 대조된다. 즉 대략 켈레비와 에펜디 칭호가 줄어드는 데 상응하여 세이드가 증가한 것이다. 잔바칼은 세이드가 되는 것이 지방 명사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식의 아스케리 지위 획득이었다고 한다. 세이드의 증가와 함께 특정한 이름으로 자신

의 가문을 표시하는 가문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로 치면 성(姓)에 해당하는 가문의 이름들은 대체로 “...zade” (...의 아들)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식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지방사회 안에서 상당히 행세하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20세기 초까지도 성이 없었다.) 16세기 초 아인탑에서는 가문의 이름이 3개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17세기 말에는 약 80개의 가문 이름들이 나타나니, 잔바칼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넓은 기반을 가진 과두제적 권력구조로의 이동“으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 도시로 이주해온 주변적인 이주민들은 예니체리⁴⁾ 집단에 편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니체리의 수가 이들로 인해 증가하여 결국 아인탑 총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흐름은 아마도 아스케리 안에서 세이드와 예니체리라는 두 집단들을 통해 도시사회 안에서의 계층분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되었고, 잔바칼은 이 두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관찰하였다. 저자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세금 청부업자들이 세금 청부계약을 이용해 무단 점유한 치프틀릭 마을들이 종종 중앙의 과세로부터 보호되어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보호가 없는 국유지인 ‘티마르’와 ‘하스’의 토지들, 혹은 종교 자선기금인 와크프 토지로부터 치프틀릭으로 옮기는 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할릴 베르크타이를 인용하면서 저자는 세금청부업자와 치프틀릭에 대한 나쁜 인상은 중앙정부의 ‘프로이트적인 책임 전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었을 뿐 치프틀릭에서 실제로는 보호와 후원이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저자가 탐구하고자 한 의문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아얀과 도시민의 관계로, 이는 종전에 가장 연구가 덜 된 부분이고 논의 자체도 좀 추상적이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아인탑의 아얀들이 도시의 대표자들로 인정되었고

4) 예니체리는 14세기 말 중앙의 술탄 직속의 보병 군단으로 시작되었고 오스만제국의 군사력 가운데 핵심적인 파괴력을 가진 집단이었으나 17세기초의 혼란기 이후 치안유지를 위해 각지의 도시에 분산 주둔하게 되었고, 도시에 뿌리를 내린 사회집단으로 되어갔다.

그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잔바칼은 이슬람 사회의 정치문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통념들에 도전한다. 즉, 종래의 정설인 이슬람권에서는 충성이 개인들 사이에서만 계약에 입각하여 존재하였다는 관점을 의문시하는 것이다. 아인탑이라는 도시에 대해 집단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아인탑 사람들’이라는 관념이 있었고 도시 엘리트의 집단의지가 상황에 따라 대표자들에 의해 표현되었다면 집단적인 충성이나 소속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더욱이 아얀은 “엘리트”와 “사람들(ahali)”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근대 초 유럽의 “public”을 연상시키는 것이라 하였다(pp. 175-176). 위의 ‘아인탑 사람들’이라는 관념 안에 비엘리트가 고려되었는지는 잔바칼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다. 비엘리트적인 요소가 아얀이 주도한 지방에서의 일상적 정치 안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거의 알기 어려운데 저자 자신이 결론에서 이 책이 일상의 정치에서 비엘리트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민이 엿보인다(pp. 185-186). 어찌 되었든, 이 책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고 미래의 연구에 영감을 제공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훗날 잔바칼의 책은 오스만 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유라시아 어느 지역이건 초기 근대(혹은 동양사에서 흔히 말하는 근세)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 책은 아주 광범위한 과거의 연구들에 응답하고 있으며, 오스만사 분야의 관행들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오스만 고전 이후 시대에 대한 역사 서술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묶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실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오스만 지방사회의 실상을 치밀하게 분석해 낸 역작이다.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